

익산 왕궁 생태복원 '밀그림'

영국 '에덴 프로젝트 팀', 왕궁정착농원 현장 조사 진행... 익산형 에덴 프로젝트 가능성 검토

영국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 관계자들이 익산을 방문해 새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가늠한다.

에덴 프로젝트 팀은 4일 익산시 왕궁면 정착 농원 일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3명으로 구성된 이들 팀은 지난 3일 입국해 오는 8일까지 6일 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에덴 프로젝트는 2001년 영국 콘월의 방치된 폐광지역을 세계 최대의 친환경 온실정원으로 탈바꿈한 생태복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침체됐던 콘월 지방은 에덴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양면의 성공을 거뒀다.

2021년에는 영국 왕실의 콘월 에덴 프로젝트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환경복원 성공 사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설립된 '에덴 프로젝트 인터내셔널(EPI)'은 현재 중국 칭다오(청도)에 '뉴-에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왕궁정착농원'을 생태교육의 장으로 복원하고자 에덴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하게됐다. 왕궁정착농원은 과거 한센인의 강제 이주와



함께 축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환경 훼손이 발생했다. 현재는 시와 정부가 토지매입을 통해 환경복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익산시는 영국 에덴 프로젝트를 실제 방문해 왕궁에 '뉴-에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답방은 앞선 협의와 관련해 실제 현장을 살펴보는 후속 교류차원에서 마련됐다.

왕궁 축사 매입부지를 서면으로 검토한 에덴 프로젝트팀은 단순한 훼손지 복원을 넘어 환경오염과 악취문제 해소, 한센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수검을 노려 높게 평가하고 있다.

에덴 프로젝트팀은 이번 방문 일정 동안 왕궁 축사 매입부지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앞선 성공 경험을 토대로 익산형 에덴 프로젝트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왕궁정착농원의 자연 환경 기능 회복과 가치 확대를 위해 오랜 기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왔다"며 "이번 에덴 프로젝트팀 방문을 계기로 왕궁이 생태교육의 모범사례로 육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선교 역사·문화 메시지 '미래로 전하다'

군산시, 선교회기념탑 기억상자 매설 기념식 개최

군산시는 1892년 호남 7인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여 11월 2일 선교회기념탑 기억상자(타임캡슐) 매설 기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의 풍부한 선교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고, 미래 세대에 선교 역사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식은 오전 9시 30분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전교회기념사업회와 군산시 관계자들, 기독교 신도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념탑 전망대는 7m 높이로 7인의 선교사를 상징하며, 기념탑 중앙에 세워진 높이 11.3m 돛은 7인의 선교사가 최초로 도착한 11월 3일을 기념하는 등 군산이 선교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지고 군산의 역사적 의미를 담았

다. 이어 기억상자(타임캡슐)를 묻는 행사도 이어졌다. 기억상자에는 군산시 지정 전반을 기록한 자료와 근대사 전반에 대한 영향을 준 선교 역사에 대한 자료들이 담겼으며, 전교회기념사업회와 군산시가 1895년을 기념하여 2095년 4월 5일 개봉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1895년 전교회기념사업회와 전도를 시작한 호남 최초의 선교회로 전교회기념사업회를 비롯해 드루와 알렉산더 선교사 등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했던 곳이다.

약 130년 전 군산을 찾은 선교사들은 교회를 개척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열악한 교육과 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대화에 기여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2024 군산짬뽕페스티벌' 성황리에 마무리

군산짬뽕의 매력으로 시민·관광객들 눈·입맛 사로잡아

군산시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짬뽕특화거리 일대에서 개최된 '2024 군산짬뽕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행사가 시작한 1일에는 군산짬뽕페스티벌의 개막선언과 함께 짬뽕을 주제로 한 영상제 공모전 시상식이 이어지면서 축제의 막이 열렸다.

이후 90년대 추억의 가수 유승범, 이정석, 장현철, 백봉기, 이규석, 전원석의 무대가 모인 시민들의 감성을 흠뻑 자극하는 한편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그 시절 추억의 향수까지 선사하며 분위기는 무르익어갔다.

행사가 열리는 동안 야외에서 운영됐던 군산짬뽕맛집 부스는 짬뽕을 즐기는 식도락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관광객들은 쌀쌀한 날씨에서 즐기는 짬뽕의 얼큰한 맛으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날리며 축제를 한껏 즐기는 모습이었다.

세계이색짬뽕부스의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4개국의 본토 국물 요리는 매운맛에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높았다.

△짬뽕 면 만들기 체험 △소원홍등



만들기 △자전거 발전으로 솜사탕만들기 △빠빠로 풍선아트 △축제캐릭터 '짬이뽕이 페이스페인팅' △축제캐릭터 '짬이뽕이' 사진찍기 등 체험 행사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군산의 중식당 업소를 방문하고 이용 영수증을 인증하는 '군산짬뽕 어디까지 가봤니?' 이벤트와 만족도 설문 조사도 연일 관광객들의 참여가 이어져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짬뽕빵과 짬뽕라면 등 이색 상품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페스티벌의 주요 무대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짬뽕특화거리는 1950년대 초 문을 연 중식당 '빈해원', '홍영장', '군산점보짬뽕', '중화반점', '중화반점1968', '민규짬뽕', '중화짬뽕', '오징어짬뽕', '개복동중식당'이 입점해 있는 '군산짬뽕'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맛의 거리'이다.

이런 역사의 거리를 배경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쌀쌀한 가을철 열린 화끈한' 군산짬뽕의 매력을 다채롭게 보여주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호응을 받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면서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인사드릴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로 축제를 평가할 것이다. 한편 군산짬뽕페스티벌 대대적인 성공의 비결로 올해 3회째 개최된 축제시기에 맞춰 적기의 방송사들의 열띤 취재와 프로그램 방영으로 '군산짬뽕' 홍보의 힘을 톡톡히 보았다는 평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 선정

석탄동2·와리3·망성화산·가좌 등

익산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석탄동2·와리3·망성화산·가좌 등 4개 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지적 불분합으로 인해 측량 성과 제시가 어려웠던

지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익산시는 국비 3억 4,200만 원을 확보해 4개 지구(1,610필지) 총면적 62만 4,176㎡에 대해 내년 1월부터 2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명확한 경계 설정으로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평일 야간 운행차량 확대

이달부터 1대 추가 운영

군산시가 11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평일 야간 운행차량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현재까지 평일 및 주말, 공휴일 야간에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월부터 평일 야간 운행차량 1대를 추가하여 총 2대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운행시간은 오

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야간은 1대만 운영한다.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063-445-1190)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이후 이용대상자 승인 결정을 받으면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063-227-0002)에 사전예약 또는 즉시콜을 통해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복지박람회 성료

'제3회 익산시 복지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익산시는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난 2일 개최한 박람회에 1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중앙체육공원에 마련된 40여 개의 체험·판매 부스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활동을 소개하고 체험을 진행해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경험하고 이해를 도왔다.

특히, 동산동 주민공유공간인 '새꿈동'은 어린이를 위한 팝콘·풍선 나눔과 어르신들을 위한 파프리카를 체험을 준비해 시민들의 많은 발길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와 지역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준비한 공연이 펼쳐져 시민이 주인공이 돼 어우러지는 장이 펼쳐졌다. 마중 주민자치센터의 한국무용과 △익산시 여성회관의 난타 △익산시청소년수련관의 춤 공연 △이리자선원의 오키나와 연주 등 11팀이 재능을 뽐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민간 건설공사장

50곳 대상 안전점검 실시

군산시는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12월 민간 건설공사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관계 공무원과 산업업체에 예방을 위해 위촉한 '노동안전지킴이'를 투입하여, 관내 중소기업도 민간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관계 법령 및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안전지킴이는 2023년 11월에 제정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